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7



1990년 3/4월호, 통권 제11호

표지는 Digital Video Graphics의 한 화면으로
1985년도 일본 잡지의 표지로 실렸던 작품

방송기술과 내용의 조화

원고 저자

김학천

한국교육개발원방송담당 부원장

1990년 발행된 11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 세대 전에 방송기술인이 아닌 방송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방송기술'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전자회사에 취직할 때 저는 방송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 자신이 너무 기술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방송기술인으로서 '방송'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과기술'을 통해서라도 방송에 대해 좀 더 고민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편집자주-

I. 기술의 위치에 관한 문제제기

방송에 있어 '기술분야'는 이제 단순기능이 아닌 창의성 영역에 들어섰다. 이것은 기술인들이 읽을 것을 전제로 한 아부성 전제가 아니다. 매년 일본이나 미국에서 열리는 방송기자재 전시회를 본 사람이라면 급속하게 발전해가는 방송기술이 전기 원리나 기계의 원리쯤으로 운용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지 오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창의(創意)적 감각이 아니면 실험도, 실용도 불가능할 것이란 확신이 서는 것이다.

다만 스태프영역의 전문화가 능률을 기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에서, '기술'이 구분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은 가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를 볼 때, 그 친화력과 융통성은 돋보이지만 피아노의 전문성과 노래의 예술성,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취약점을 보이는 것에 비할 수 있겠다. 즉 방송은 그 완성도를 고려하면 할수록 기술분야의 전문성은 그 창의력의 신장과 함께 높아져야 하는 숙명을 지닌다는 뜻이다.

돌이켜 볼 때 이미 40년대 중반 해방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방송기술은 그 위치와 중요성이 방송의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바르게 인식되는 출발단계가 있었다. 아주 초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체제가 완벽하게 확립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인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확립된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다. 요구되는 기술발전엔 부응하는 일은 매우 급했으나 기술인이 견고한 위치에서 이를 수행하기보다는 우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난 후 스스로의 위치를 돌아보는 그런 형식이었다. 군정(軍政)때부터 정부 수립시기까지의 방송협회와 방송국 안에서의 기술인의 위치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방송사는 기록하고 있다. 하긴 우리의 방송은 자율과 자주적인 문화의식에 바탕을 둔 시기가 그 전체 역사에 비하여 너무 짧다.

그런 까닭으로 60년 이래 줄곧 달음질해 온 기술의 발전도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보는 시각보다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내용의 쇠약함을 더 들추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일제하의 방송이 우리의 문화체계에 끼친 영향을 논하기 어려운 형편인 데다가 그 식민지 선전도구에 변변하게 저항 한번 못해보고 해방을 맞았으나 방송의 원칙을 뚜렷하게 세우고 출발하지 못했다.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서독(西獨)은 종전 후 철두철미하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체제를 모색했다. 그러나 우리는 군정에서 국영으로 그리고 기업이 독점하는 민영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우리를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찬찬이 조명해 가면서 매스미디어의 힘을 객관화시키는 시기를 늦추어 왔다. 너무 긴 기간 동안 그러했다. 때문에 이 시기의 기술의 발전 역시 경탄과 찬사를 보내면서도 도대체 무

엇을 위하여 그와 같은 노력이 투입된 것인지 비판적 의문을 수반하곤 했다.

다행히 그와 같은 노력과 성과가 필연적인 설득력을 지니면서 존재를 확인시킨 시기가 있었다. 올림픽이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기술은 방송의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알려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오늘을 영위하는 방송기술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방송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발전과 변화를 겪는다고 할 때 방송기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의 영역만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전문기술인의 외곽에서 몇 가지를 조명해 본다.

II. 묶인 내용속의 기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자의 욕심이 인물과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소리과 그림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물론 그대로 방송이 되어서 잡음이 많은 라디오라든가 화면이 선명치 못하고 겨냥하는 주제의 초점을 알 수 없는 TV에서 비로소 시청자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제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참여한 기술 스태프의 책임도 크다. 반대로 제작자와 기술의 안목, 즉 프로그램의 주제를 보는 가치관이 맞아떨어질 때는 양쪽이 거의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상승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기술분야는 모두가 내용의 표출효과까지를 참작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의식'에 접근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의 생동감과 내용적 가치는 월등해지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너무 오랜동안 우리는 내용표출에 영향을 주는 기술의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에 소홀해왔을 뿐이다. 실상 그것은 기술 쪽에만 치우친 책임은 아닐 터이다. 제작자에게도 똑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며 타협만이 직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편이던 시기가 길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군정(軍政)때부터 정부수립시기까지의 방송협회와 방송국 안에서의 기술인의 위치는 그런식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방송사는 기록하고 있다. 하긴 우리의 방송은 자율과 자주적인 문화의식에 바탕을 둔 시기가 그 전체 역사에 비하여 너무 짧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절박한 문제나 고약한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 근로자의 하루와 일생을 지배하는 노사 문제, 인구의 증가 및 집중문제, 투기의 고도화와 그 해독의 문제, 공해와 교통의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이끄는 양심과 양식의 문제 관영방송시대나 상업방송시대라고 해서 이들

문제가 전연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답이 예상되는 지나친 계도나 재미의 척도만으로 방송이 설계되어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너무나 길었다.

이 시기에도 물론 방송기술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방송에서의 '절실한 말', '충실한 내용'의 부족은 두 가지 면에서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하나는 유익한 정보가 적다는 점이고 둘째는 여론형성의 도구로서 가치가 충실치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적으로 취약한 결과가 나온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약점을 메꾸기 위하여 강제적인 대책이 동원될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로 우리의 방송은 프로그램의 구조적 안배를 정책으로 밀어붙인 일이 있으며 심지어는 코미디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운 일도 있었다. 70년대 중반에 일정한 시간대를 교양의 특성만을 강조하여 연속극 숫자를 조정하고 어린이와 가족시간대를 고정시킨 일이 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

계도적 기능 강화라는 것이 어느만큼 권장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 설계를 제시하고 편성을 고정시킨다면 도무지 성공을 기약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어떤 지시도 시청자를 이끄는 전문가의 보편타당한 가치관과 경륜 이상으로 영향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며 소신이 없는 까닭으로 지시에 얽매인 이해타산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적인 저널리즘에 굶주린 시청자는 첨단기재의 신기함 보다는 참신한 내용에 우선 압도한다. 이러한 것은 세월이 가면서 방송의 예술성과 저널리즘이 만날 때 나타나는 특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오후 8시대를 사회교양이 강조되는 시간으로 정하고 계도적 교양물로만 채웠으나 의욕이 없는 시간대로 변모함에 따라 점점 건조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허가받은 오락시간대는 더더욱 저질화하는 악순환을 과거에 체험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채널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에서 평준화되는 경험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통제가 되면 될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시청률의 개념은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아울러 시청자의 기본적 선택권은 더 보잘것없는 개념으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다만 타율적 규제의 강화가 낳은 결과는 도피적인 오락성향이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환상적 의사환경(擬似環境)에만 빠져들어 만성적 무기력과 무관심의 세태만 조장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시기에 기술의 발전이란 그것 자체로 쉽고 값싼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평

가받기가 어려운 발전인 듯 싶다. 왜냐하면 기술이란 것도 결국은 '모양 좋은 전달'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바른 전달'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II. 내용의 조화와 기술

5공화국이 끝나면서 방송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 처음엔 각 채널마다 토포프로그램이 하나씩 생기고 뉴스의 고정적 순서가 달라진 정도였다.

시간분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별것이 아닌 변화였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준 변화감각은 엄청난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양과는 관계없이 하지 못하던 '말'이 비로소 섞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내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적인 신념은 사실상 기술을 압도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변화된 내용이 시청자의 머릿속에 차분하게 자리잡는 데는 기술의 기여가 등장해야 한다.

결국 정상적인 저널리즘에 굶주린 시청자는 첨단 기재의 신기함 보다는 참신한 내용에 우선 압도한다. 이러한 것은 세월이 가면서 방송의 예술성과 저널리즘이 만날 때 나타나는 특성일 것이다. 통제사회에서 대중을 사로잡는 것은 우선 저널리즘인 것이다. 더구나 매우 암울한 시기에 약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저널리즘이었다면 그 변화과정에서는 변화의 모습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할 때 방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오락적 요소의 무게와 질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오락이 통제사회에서 방송을 지배한 가장 큰 요소였기 때문이다. 유익한 요소와 필요한 요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오락만이 추가될 때 방송은 도피적인 매체로 비치게 되고 역기능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된다. 방송의 대중성은 어쩔 수 없이 속성으로 인정되지만 질 낮은 대중문화로만 변화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낭비와 소모적인 국면이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친 오락성향을 걱정해 왔다. 내용이 없이 일상사만 나열되는 드라마류는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었고 언어의 질을 유지한다는 측면이나 풍자의 수준을 요구할 때 코미디를 걱정하곤 했다. 또 문화감각이 생소한 외화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위치를 연상하곤 했다. 방송 전체적인 사실성과 좀 화려하게 재현되는 무대적 허구가 나뉘게 무엇이나는 갈등이 언제나 공존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방송법 시행령에 기록해 놓고 이를 지키도록 했다. 보도, 교양, 오락의 편성비율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행령상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얼마나 원칙답게 지켜지느냐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였다. 위의 법에서 방송을 크게 분류하여 보

도, 교양, 오락을 구분하고 있다. 보도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하는 방송이며 교양이란 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방송일 것이며 오락이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 정의야 어떠하든 방송의 모든 형태는 국민을 공정하고 유익한 입장으로 선도하고 알 권리를 지켜주고 좁아진 지구촌에서 넓은 견문을 지니고 살도록 해주며 지치기 쉬운 산업 사회에서 내일의 생산을 전제로 적절한 휴식을 얻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엘리트로부터 대중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특성별 프로그램의 양을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균형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방송은 찬사만큼이나 늘 날카로운 비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보의 불공정한 배분이 노출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전파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권력쪽의 방침으로만 해석되는 경향 때문이기도 했고, 대중의 방송에 대한 성향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오락으로만 치우쳐 해석하는 까닭이기도 했을 것이다. 비판과 논의를 통해서 여론의 짐을 지기 보다는 부담없는 휴식으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편하다는 인식을 쓸어버리지 못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천천히 교양의 의미와 실체는 오락과 구분하기 어렵게 섞여 버리고 '교육'이란 방송을 통해서 환영 받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방송기술 역시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어느 부문에 있겠는가 하는데 해답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교육인 것이다.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아예 전용채널을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취급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반채널의 강력한 오락적 투자와 경쟁을 할 처지는 전혀 아니다.

시청자 수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온 사회가 목을 끌려가듯 매달려있는 대학 입시와 관련한 방송을 그것에 대한 본질적 비판과는 아랑곳없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방송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손으로 작동하는 단계를 넘어서

첨단의 날카로움을 보이면 보일수록

공업용 기계처럼 비정한 정확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연하고 어려워지는 휴머니즘과

예술적 창의성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방송은 역시 요긴한 매체라는 뜻이 된다. 다만 그와 같은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멈춰버리고 있는 형편이다.

새삼스러운 지적이 되겠지만 이제는 프로그램의 형태에 있어서도 종전처럼 일본을 본따는 데만 열중한다든지 미국에서 구상한 내용이면 무엇이든지 흥미를 끌 것이라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는 형편이다. 기술과 내용 모두가 넓고 적극적인 창의력 영역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외국 프로그램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곳은 이젠 공산권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만조원 정도의 방송비용을 내고 있는 규모를 생각한다면 방송의 과제는 그만큼 크고 복잡해지며 새로운 전달 방법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기술적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IV. 기술의 종착지

80년도에 통폐합을 통하여 외적으로나마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되어 오던 방송이 이제 다시 재정비를 서두르는 시기에 와있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치우쳐있던 공영제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있는 문제제기일 것이나 변화되는 제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형편이다. 토론의 핵심은 채널의 증가와 민간방송의 설립여부에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공중파의 본질적인 보수성은 급격하게 변해서도 안되고 변하기도 어려운 형편일 것이다. 뉴미디어에 비하여 더욱 그러하다. 결국 기존의 채널을 포함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채널도 근본적으로는 공영의 성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반면에 뉴미디어 특히 CATV는 상대적으로 상업성 또는 상품성이 강조됨으로써 공중파와는 다른 메시지를 담는 방식이 고려될 것이다. 공중파와 뉴미디어가 어울리는 방송의 시대는 곧 방송기술의 시대라는 해석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뉴미디어란 기술발전의 개념일 뿐 내용변화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뉴미디어 공존시대에는 공중파의 송신업무 등은 공영성을 되살리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도 다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용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즉 제작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 송신기술체계는 독립된 운영 체제 아래에 움직이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밖에 내용과 연결되는 기술체계는 방송의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부각과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너무 거창한 표현이라면 아주 작은 일에서 출발하는 도덕적 의무들을 상기해도 되는 것이다. 흥미위주의 선정적 내용을 선호하지 않는대거나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뚜렷한 주권을 갖는대거나 은익이나 왜곡에 대한 몇몇한 저항도 스텐트의 권리이고 의무인 것이다. 방송 자체의 힘은 엄청나

게 큰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운영하는 스텐트의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순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주의에 대해서는 기술인도 역사가족을 거느린 상식적인 시청자의 위치를 지키게 되는 것이며 '고발'이 아무리 중요하고 인기 항목이지만 약한 쪽의 인권이 밟히는 고발은 이미 고발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계층이 혜택 받는 방송, 즉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스텐트가 골격을 이루는 가치관을 지녔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뚜렷하고도 현저한 차이의 생산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긍정적이지 못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안 듣고 안 볼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 방송이 주는 정보를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에게겐 안 보면 된다는 권유는 황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손으로 작동하는 단계를 넘어서 첨단인 날카로움을 보이면 보일수록 공업용 기계처럼 비정한 정확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연하고 어려워지는 휴머니즘과 예술적 창의성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전문기술인이 아닌 방송인이 보는 오늘날 기술의 실체인 것이다. 